



‘국내고용 없는 완성차’ 자동차산업 노동자 고민 나눠 금속노조 자동차산업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 “여기가 베이스캠프, 조직 노동자 힘으로 돌파”

금속노조가 2월 13~14일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2025 금속노조 자동차산업 노동자 역량강화 학교’를 개최했다. 금속노조 자동차업종분과 조합원 105명이 참여했다.

손덕현 노조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 변화, 기술 변화 등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부품회사는 존폐의 갈림길에 서고 부품사 노동자들은 고용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자동차산업 방향과 계획을 나누고 토론으로 해답을 찾아 나서자”라고 제안했다.

2025 금속노조 자동차산업 노동자 역량강화학교 참가자들은 먼저 이항구 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의 ‘2025년 자동차산업 동향과 쟁점’ 교육에 참가했다.

이어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원장이 금속노조 조직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조합원 인식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 노사관계

의 특징과 시사점’을 설명했다.

홍석범 연구원장은 “기업과 그 소유자인 재벌 오너 일가를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라며 “현대차그룹 노무관리 전략의 근본적인 목적은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므로 노조의 대응 방향 또한 기업 자체만이 아닌 그것을 소유하는 재벌 일가와 소유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연구실장이 한 ‘공급망 실사 원리와 노조운동에 주는 시사점’ 교육을 끝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 교육 이후에는 노조 정책실이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정세, 2025년 사업 목표 등을 설명했다.

정유림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2025년 금속노조 자동차업종분과 사업 계획과 한국 자동차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정유림 국장은 국내 자동차산

업 전망 핵심 키워드로 ‘국내 고용 없는 자본의 성장’을 꼽았다. 정 국장은 “현대차그룹이 생산공장과 R&D 연구시설 등을 포함해 미국에 30조 원을 투자하고 57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도시 하나가 미국으로 간 꼴”이라며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한온시스템, 아진산업, 서연이화 등 금속노조 사업장 2차, 3차 업체들도 미국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정 국장은 “금속노조 전체 간부의 일치된 인식, 역량 강화, 연대의 확장을 통해 전환기 올바른 산업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조직된 노동자 산별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히 임하자”며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바로 베이스캠프다. 우리가 힘 모아 함께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노동자들이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고 느꼈다’, ‘이런 교육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등의 평가를 남겼다.

“현장 문화 활동으로 금속노조 투쟁과 승리를 만든다”

금속노조 2025년 현장문화패 수련회 ... 새 보급곡 익히고 문화패 실태 공유



금속노조 지부, 사업장 문화패 동지들이 모여 2025년 현장 문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2월 15, 16일 양일 충북 단양 금속노조 연수원에서 ‘2025년 현장 문화패 수련회’를 열었다. 경기, 경남, 광주전남, 구미, 인천, 충남, 기아차, 한국지엠,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노조 10개 지부 소속 문화활동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 문화국은 수련회를 ▲문화패 활동 보고 ▲현장 문화패 실태 발표 ▲정세교육 ▲매체별 교육 등으로 꾸렸다. 백일자 문화국장은 수련회를 시작하며 “녹록지 않은 현실에도 애쓰는 전국의 금속노조 문화패원들이 만나 서로 격려하고 현장 문화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매년 이 자리를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2014년부터 해마다 현장 문화패 수련회를 연다.

먼저 문화패 활동을 공유했다. 각 문화패는 지난해 활동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와 발표했다.

문화패 현황 보고 시간에는 현장 문화패 실태를 살펴봤다. 조합 문화국에서 결성 시기·활동 시간 등 문화패 기초사항과 함께 ▲인원수·평균연령·활동 연수 등 패원 기초사항 ▲문화패 인원 변동

추이·원인 ▲선출 방식 등 패장 관련 실태 ▲2025년 활동 목표 등에 대한 현장 문화패 설문 결과를 정리·발표했다. 참가자들은 현장 문화패 운영에 관한 고민을 나누었다.

올해 현장 문화패 수련회는 몸짓·노래·풍물 등 매체별 교육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다. 노래패와 몸짓패는 2025년 보급 문화선동곡(자, 가사)을 연습했다. 풍물패는 날뽀북춤을 배웠다. 교육이 끝난 다음, 새로 배운 보급곡과 북춤을 다른 매체 활동가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전국의 문화패 동지들을 만나 반가웠다. 문화패가 윤석열 퇴진 투쟁에 더 집중해야 한다.”

“문화패 활동을 오래 하고 정년퇴직하신 선배님들이 계신다. 선배들에게 현장 문화 활동 역사와 소회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

“현장 문화 활동이 단순히 노래 부르고 몸짓만 하는 게 아니다. 알아야 한다. 문화사업 보고, 문화패 현황 조사 결과 발표, 정세교육으로 수련회를 시작한 게 적절했다.”

“긍정 에너지를 얻었다. 금속노조 문화선동대로 투쟁 조직과 승리에 이바지하겠다.”

“매체별 교육으로 새 노래를 익혀 알찬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수련회 평가와 현장 문화패 활성화 결의로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투쟁 현장에서 문화 활동으로 자주 만나자며 인사를 나누었다. 백일자 문화국장은 “참가자들 의견을 반영해 다음 수련회도 잘 준비하겠다. 노동자문화를 지키는 동지들에게 힘을 주는 문화국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